



With
KAU
Webzine

Twentieth steps

새로운 꿈
새로운 시작 새로운 도전

새내기성공센터

목차 With KAU 함께 이루는 꿈

새내기성공센터 3중멘토 활동

2022-2 어깨동무멘토링 성과확산 발표회 2

재학생 멘토들의 멘토링 이야기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 “우기중 한줄기 빛” 3
 항공전자정보공학부 “최전선” 4
 신소재공학과 “MOT” 5
 소프트웨어학과 “항공대학교에는 스튜디오스학과가 없어요” 6
 AI자율주행시스템공학과 “뚜뚜뽕뽕” 7
 항공교통물류학부 “Sparkle” 8
 항공운항학과 “응애 나 애기 호랑이” 9
 경영학부 “그린나래” 10
 자유전공학부 “교전” 11

내 인생의 나침반이 될 수 있는 추천 도서 소개

가장 좋은 것을 너에게 줄게 : 정여울 12

With KAU 멘토&멘티 참여코너

소프트웨어학과 “따라와십팔”팀 인터뷰 14

2월 웹진 퀴즈 이벤트

With KAU 웹진 퀴즈 풀고, 리뷰를 남겨주세요 19

새내기성공센터 2023년 3월 일정

이달의 행사 일정 22



표지 [©한국관광공사 사진갤러리-김은도] 저작권

[촬영지역 : 강원도 동해시 묵호지동]

With KAU 웹진은 네이버에서 제공한 나눔글꼴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2022-2 어깨동무멘토링 성과확산 발표회

새내기성공센터는 2월 8일(수)에 어깨동무멘토링 성과확산발표회를 개최했다

2022학년도 부터 시행한 어깨동무멘토링 프로그램은 신입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을 위하여 우리대학 동아리를 통하여 자기개발, 힐링 등 팀별 멘토링 활동지원을 통하여 공통의 취미를 즐기며 진행하는 특화 멘토링 프로그램이다. 동아리 학생회원들이 주축이 되어 동아리 특성을 반영하고 자체 기획한 특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새로운 재능기부 및 나눔 문화확산을 위해 기획되어 참여한 동아리 회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2학기 5개월간의 여정 끝에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다.

2022학년도 2학기는 항공분과 송골매, 체육분과 ASTROS, 학술분과 PTPI가 선정되어 어깨동무 멘토링 활동을 진행했다. ▲ 송골매 동아리에서 자체 기획한 프로그램은 CPR교육과 텀덤비행 및 윈스키 체험 ▲ ASTROS는 KK챔피언십 참가 및 신윤호 야구왕국, 이남호 베이스볼 아카데미에서 야구레슨 ▲ PTPI는 서울숲 줍깅, 수색역 바자회, 부산 플로깅을 운영했다.

이번 성과확산 발표회에서는 각 동아리별 기획한 프로그램의 운영성과를 발표하고 자체 제작한 활동 동영상 시연을 하며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 송골매 동아리의 CPR 교육에 참여한 한 김태승회원(경영학부, 22학번)은 "중고등학교때도 CPR교육을 받아서 모두 알고있다고 생각했었지만 실제로 강사가 출제한 퀴즈를 모두 틀렸다. 심지어 아쉽게 틀리게 아닌 정답과 내 생각이 정반대였던 문제가 많았다.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알게 되었고 나중에 비상 상황시 내가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며 참여소감을 전했다 ▲ PTPI 동아리 활동에 참여한 이다은회원(항공전자정보공학부, 22학번)은 "동아리 회원들과 타지역으로 가서 친목도 다지고 봉사도 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플로깅 하면서 거리를 살펴보고 쓰레기도 주우며 봉사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도 즐거웠다."고 참여소감을 전했다.

이번 성과 확산발표회를 통하여 우수활동 동아리는 ASTROS가 선정되었다. 동아리 자체 특화 프로그램을 기획한 임원진 3명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새내기지원팀장은 "신입생들이 동아리에서 자체 기획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이를 통해 성공적인 대학생활로 이어갈 수 있어 큰 의미가 있었다." 라며 "동아리들과 함께할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며 신입생들의 꿈지기로서 역할을 이어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1. 멘토링 활동보고 - 체험활동

<체험활동>

1. CPR 교육

주제 : CPR 교육
 일시 : 22.11.17
 장소 : 한국항공대학교 과학관 112호

활동 내용 :
 > 인스트림 스포츠를 하는 본 동아리의 특성상 사고를 대비하여 안전교육 실시
 > 대한심폐소생협회에서 진행하는 '일반인을 위한 심폐소생술 교육과정' 이수
 > 총 19명 (멘토 3명, 멘티 16명) 참여
 > 활동비 465,000원 지출 (예산비중 15.5%)



02. 비행 경기 (체험활동)

KK 챔피언십 참가

경기를 통해서 공식 문화를 다른 동아리 선수 간에 친화 및 교류를 통해 서로 노력해서 관여했던 결과를 보여주는 시간으로 더욱 최다 우승 타이틀을 얻음으로써 그동안의 노력이 보람있는 시간을 가졌다.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 “우기중 한줄기 빛”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항우기생활을 하며 역학 등 다른 교과목들을 배우느라 지친 새내기들에게 멘토링활동이 한줄기의 빛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팀명을 지었습니다.

우리활동.



9월

12월

팀명

활동목적

참여소감

▣ 우기중 한줄기 빛

☆ 새내기들이 배우게 될 교과목에 대해 궁금한 점과 학교생활 팁을 알려주고 학교 근처에서 활동적으로 친목을 다지며 다양한 경험을 하도록 도와준다.

▣ 멘토 : 멘토링 활동을 하며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이나 팁들을 조금이나마 새내기들에게 전달해줄 수 있어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새내기때 이러한 선배들이 있었다면 학교생활에서 나아가는 길을 잡기에 조금은 수월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기에 현재 비슷한 고민을 겪고있는 새내기들을 더욱 도와주기 위해 힘을 썼던 것 같습니다.

▣ 멘티 : 멘토링 활동을 하면서 궁금한 점을 멘토에게 바로 물어보고 즉답을 받으며 학교생활을 하는것에 있어 도움이 되었고, 멘티들과 함께 친목을 다지며 학교생활을 하는것에 있어 큰 도도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항공전자정보공학부 “최전선”

최강 전정 선후배 화이팅!

우리활동.

출석부						
11월 28일 ~ 12월 4일						
공부시간						
가입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운동부 주장	미가됨	미가됨	미가됨	미가됨		
뽕새깡	미가됨	미가됨	미가됨	미가됨	오후 08:50	오후 01:02 오전 11:50
엘빈민우	미가됨	미가됨	미가됨	미가됨	미가됨	오후 03:27 오전 11:38
억지로 하는 공부	미가됨	미가됨	미가됨	미가됨	오후 08:36	오후 03:14 오전 10:26
EUni정윤	미가됨	미가됨	미가됨	미가됨	미가됨	오전 10:46
이재*TT	미가됨	미가됨	미가됨	미가됨	미가됨	오후 06:15 오전 09:12



9월

12월

팀명

활동목적

참여소감

최전선

- ☆ 새내기들의 성공적인 대학생활 위하여 실전 노하우 전수
- ☆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진로 가치관 형성

- 멘토 : 3학년 2학기라는 바쁜 시기에 멘티들을 만나 학기초에 계획했던 것처럼 많은 활동을 수행하진 못했다. 하지만, 열심히 따라주는 멘티들이 있어 내가 아는 범위에서 팁들과 정보들을 제공하였고, 멘티들도 좋게 받아들인 것 같아 다행이었다.

▫ 멘티 : 이번 멘티활동을 통해 많은 것을 얻어 다음학기 새내기멘토링 멘토로 선발되었습니다. 얻은 것이 많은 만큼 많은 것을 다시 나누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신소재공학과 “MOT”

MOT팀은 Material Engineering On Top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활동.



9월



12월



팀명

활동목적

참여소감

▫ MOT

- ☆ 1학기보다 발전된 활동을 통해 2학년을 준비.
- ☆ 멘토링에 좋은 기억을 갖고 멋진 멘토가 될 수 있기를.

- 멘토 : 저도 처음 학교를 입학한 새내기 시절 멘토 멘티 활동을 하면서 금방 적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첫 멘토링 활동이었는데, 잘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지만 멘티 친구들이 잘 따라주어 즐겁게 활동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학년에서 좋은 후배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 멘티 : 멘토 멘티 활동을 하면서 다양하게 전공에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좋았으며 학교 생활에 금방 흥미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소프트웨어학과 “항공대학교에는 스튜디오스학과가 없어요”

자랑스러운 항공대를 좀 더 알리자는 의지를 가진 팀명입니다.

우리활동.



9월



12월

팀명
활동목적

▣ 항공대학교에는 스튜디오스학과가 없어요

- ☆ 새내기들의 단 한번뿐인 1학년 캠퍼스라이프를 위하여 최대한 서포트 하기
- ☆ 다양한 활동 및 만남을 통한 멘토 멘티간의 우애 형성

▣ 멘토 : 20대 초반의 생생한 패기를 느낄 수 있어서 좋았다. 멘티들로부터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워갈 수 있었다. 앞으로의 학교생활, 진로 고민 등으로부터 멘티들을 많이 도와줄 것 멘티들끼리 친해지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 멘티 : 99년생의 늦은 대학교생활에 적응하기 힘들 줄 알았는데 동갑 멘토 덕분에 잘 적응할 수 있었다. 또한 같은 멘티들 중 99년생이 많아서 좋았다.

▣ 멘티 : 교수님께 진로상담을 했던 경험이 기억에 남고 좀 더 많이 놀러다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참여소감

시 자율주행시스템공학과 “뚜뚜뽕뽕”

뚜뚜뽕뽕 팀은 시 자율주행시스템공학과 멘티들이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된 공학을 접하며 떠올릴 수 있는 의성어로, 본 학과에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활동.

9월



12월



▣ 뚜뚜뽕뽕

- ☆ 새내기들의 순탄한 학교생활과, 성공적인 대학생활 적응
- ☆ 다양한 활동을 통한 멘토 멘티간의 우애 형성

- ▣ 멘토 : 학교 공부에 바쁜 와중에도 멘토링을 함으로써 후배들을 챙겨줄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 다행이었음. 1학기 때보다는 멘티들끼리 더 친한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좋았고, 연합멘토링을 진행하면서 멘티들 뿐 아니라 멘토인 나도 다른 멘토와 친해질 수 있는 자리가 많들어 저서 좋은 경험이 되었다고 생각함.
- ▣ 멘티 : 이번 학기도 무사히 마칠 수 있어서 좋았고, 1학기 때처럼 멘토링 만남을 가질 때마다 좋은 정보와 학교 소식을 얻을 수 있어서 만족스럽다.

팀명
활동목적

참여소감

항공교통물류학부 Sparkle

특특 튀는 새내기들의 매력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우리활동.



9월

12월

팀명 활동목적

참여소감

▫ Sparkle

- ☆ 성공적인 적응 후 진로 설계 및 자아 실현
- ☆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인사이트 확장

▫ 멘토 : 1학기보다 다들 더 돈독해진 것 같아 뿌듯함을 느꼈다. 1년 농사를 잘 지어낸 것 같아 성취감도 있었고 반대로 얻어가는 것도 많은 멘토링이었다.

▫ 멘티 : 1학기에 이어서 같이 많은 활동을 하고 재밌게 지냈던 멘토, 멘티들과 한 학기 더 함께하면서 이전보다 더 돈독해지고 재미있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멘토인 동균이형이 잘 이끌어줘서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었고, 동기들도 함께 잘 참여해줘서 더 뜻깊었습니다.

항공운항학과 “응애 나 애기 호랑이”

호랑이 해에 입학한 신입생들의 당찬 포부를 상징합니다.

우리활동.



]

9월

12월

]

팀명

활동목적

참여소감

▣ 응애 나 애기 호랑이

☆ 전공 심층 탐색을 통한 진로 계획 수립

☆ 선후배, 동기 간 유대감 형성

▣ 멘토 : 이번 학기부터 대면수업을 진행하고 일부 멘티와 같은 교양 수업을 들으면서 서로 더 가까워 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간담회를 기획하며 학생들이 정말로 궁금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되었습니다.

▣ 멘티 : 9월에 입학해서 여러 걱정이 많았지만 멘토 선배님이 시간표 짜는 법과 학과 졸업/장학금 정보 등에 대해서 따로 상세하게 안내해주어서 좋았습니다. 또한 다른 많은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습니다.

▣ 멘티 : 학교 축제를 우리 새내기 팀원들끼리 준비해서 운항학과 주점을 더욱 풍족하게 만들어서 뿌듯합니다.

경영학부 “그린나래”

‘그린듯이 아름다운 날개’라는 뜻의 이름으로,
멘티들이 멘토링 활동을 통해 아름다운 날개가 되어 날아오르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활동.



[

9월



12월



]

팀명

활동목적

▫ 그린나래

- ☆ 멘토-멘티, 멘티-멘티가 서로 교류하고 도움을 통해 함께 성장하고 알찬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
- ☆ 교내외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함

참여소감

- 멘토 : 1년 멘토가 아닌 한학기 멘토로 참여하게 되어 여러모로 아쉬운점이 컸지만 그럼에도 멘티 친구들이 잘 참여해주고 따라와줘서 고마운 마음이 큼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바쁜 시기에 멘토로 참여하게 되어 꼼꼼하게 잘 챙겨주지 못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크고 멘토링 활동을 참여하게 되어 같은 과 후배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들이 너무 값지고 귀한 시간 있었다.
- 멘티 : 2학기동안 멘토 멘티 활동을 하면서 느낀점은 우선 멘토님께서 멘티들을 잘 챙겨주신다는 느낌을 받았고,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자유전공학부 “교전”

교물 멘토와 자전 멘티들의 만남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활동.



]

9월

12월

]

팀명

활동목적

참여소감

▣ 교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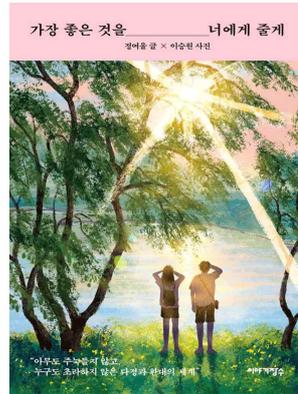
- ☆ 새내기들의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위한 활동
- ☆ 멘티들과의 단합 뿐만 아니라 멘토와의 유대감 형성

- ▣ 멘토 : 짧은 시간 동안 멘티들과 서로 친해지면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어 기뻐요. 더 잘 챙겨줘야 했는데 하는 아쉬움이 남지만, 그래도 활동들 잘 따라와준 멘티들에게 감사함.
- ▣ 멘티 : 멘토 선배가 잘 챙겨주셔서 고마웠고, 같은 전공 학우들과도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 정말 의미있는 한 학기가 되었음.
- ▣ 멘티 : 멘티들 6명 모두 챙기느라 고생했을 멘토에게 정말 고맙고, 한명 한명 개개인으로 챙겨주는 모습이 참 좋았음. 함께한 활동 모두 재밌었음.

내 인생의 나침반이 될 수 있는 추천 도서 소개

“아무도 주눅들지 않고,
누구도 초라하지 않은 다정과 환대의 세계”

가장 아픈 곳을 아물게 하는 작가 정여울 신작



가장 아픈 곳을 아물게 하는 작가 정여울 신작

팬데믹 이후 제가 매일 던진 질문은 이것이었습
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버티고 있는가. 무슨 힘
으로 이 기나긴 고통을 견뎌내고 있는가. 생각해
보니 내가 가진 가장 밝고 찬란하고 해맑은 사
랑의 힘으로, 나는 매일의 고통을 버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날 내 결의 소중한 이
에게 꼭 남기고 싶은, 그렇게 가장 좋은 것만을
소중한 이에게 선물하고 싶은 마음으로 글을 썼
습니다. 이 책의 꿈은 당신의 이름은 물론 얼굴
조차 모를지라도 당신을 무조건 환대하는 것입
니다. 나아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이 못 말리게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삶 자체를 두 팔 벌려
기쁘게 환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순간에도, 우리 아직은 괜찮다고 느끼던 순간들에 대한 이 이야기

팬데믹의 터널을 통과하는 동안 어떤 이들은 참
고 참다가 마침내 인내심을 잃어버렸다. 세상엔
점점 이상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지
는 듯하고, 사람들은 끝없이 경계를 가르고 서로
를 경계한다. 하지만 정여울 작가는 타인 혹은
나와 다른 집단에 라벨을 붙여 왕따시키는 사람
은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
한다. “타인의 다름과 독특함을 받아들일 용기가
없는 사람들”이 마치 겁에 질린 듯 사람을 내친

다는 것이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나와 비슷한 부
류에 다정해지기는 쉽다. 그러나 나와 다른 것,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을 환대하고 보살피기는 쉽
지 않다.

이 책의 1부 ‘따스하고 복잡하며 구슬픈 당신에
게’에서는 우리 내면의 복잡하고 모순적인 감정
들을 짚어보면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무너진 마
음을 일으킬 만한 조각들을 찾는다. 아마도 우리
가 가장 환대하기 어려운 존재는 가족과 나 자
신일지도 모른다. 노부모와 크게 다투고 돌아서
는 길, 왜 내 부모는 내 마음 같지 않을까 원망
스러워지고 괴로울 때 그가 선택한 하나의 길은
마음을 울린다. 또한 32년의 나이 차에도 불구
하고 더없이 다정했던 벗이자 스승 황광수 선생
이 돌아가신 뒤, 길을 걷다가도 일을 하다가도
뚝뚝 눈물을 떨구며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
던 그의 마음을 열어주었던 인연에 대한 이야기
도 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영영 잃어버
렸거나 스스로 망쳐버렸다고 느낄 때, 우리를 높
에서 건져낼 이야기가 여기 있다.

2부 ‘가장 아픈 시간은 끝났다’는 인생에서 우리
를 수시로 주저앉히는 지나간 시절의 상처와 트
라우마로부터 나 자신을 토닥이는 법에 대한 이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 정여울 작가는 이 에세이의
원고를 넘기며 편집자에게 ‘에세이의 끝까지 가
보고 싶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독자들에게
자신의 마음 바닥에 눌러둔 내밀한 상처를 먼저
열어 보이며 ‘스스로 돌아보고 보살피는 에세

이의 끝'으로 점차 나아간다. 학생이 아닌 선생으로부터 먼저 따돌림을 바랐던 어린 시절의 충격, 부모의 큰 기대를 배신할 수 없어 괴로워했던 모범생의 힘겨움, 여성으로 살아가면서 겪은 모욕과 차별, 지금까지도 수많은 역할과 책임 중 그 무엇도 쉽게 거절하거나 내려놓지 못하고 스스로 온 힘을 다해 지탱하며 하루하루 위태롭게 버텨내고 있는 과로의 나날들에 대하여. 그러나 상처를 스승으로 여기는 정여울 작가는 알고 있다. 그 어떤 아픈 시간도 결국은 '끝'이 있음을. 그리고 상처와 아픔을 비정상적이고 불행한 상태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처와 트라우마가 폭풍처럼 지나간 뒤의 어느 안온한 날에 잠시 미소 지으며, 행복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결국 삶의 진실에 가닿는 길임을 그는 써 내려간다.

그림자를 품어 안는 삶의 아름다움은 '빛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겸허함'에서 시작된다. 뉴욕의 브로드웨이 극장가에서 팬데믹의 기나긴 터널을 뚫고 마침내 2년 만에 첫 공연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한 배우가 이렇게 말했다.

“더이상 이 무대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평소에는 매일매일 출연할 수 있었던 바로 그 무대가 때로는 지긋지긋했지만, 팬데믹으로 인해 '아무리 서고 싶어도 결코 무대 위에 설 수 없었던 2년'이 그들에게 무대의 소중함을 가르쳐주었던 것이다. 우리의 행복은 결코 당연하지 않다. 그림자를 극복해낸 사람만이 빛의 소중함을 온몸으로 받아들인다. 때로는 당신의 그림자가 당신을 위협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당신의 콤플렉스, 트라우마, 슬픈 기억이 인생의 발목을 잡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끝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그림자를 품어안는 용기, 그림자를 극복하는 희망, 그림자로 인해 더욱 찬란하게 빛나는 우리의 사랑이다. (148쪽, 「그림자로 인해 더욱 아름다운 빛」 중에서)

“세상이 날 받아주지 않더라도, 이것만 있다면 괜찮아요.

모든 날이 끝내 괜찮습니다.”

3부 '우리가 서로를 돌볼 수만 있다면'에서 그는 팬데믹의 시대를 지나며 우리에게 새삼 소중해진 것들, 그리고 비대면으로도 주고받을 수 있는 연결의 감각들에 대해 말한다. 그는 어느 날 학원도 안 가고 게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선언하는 조카를 보며 자신은 한 번도 내어보지 못한 '가끔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용기'에 대해 생각한다. 그리고 요즘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OTT 드라마들 가운데서도 자신이 사로잡히는 어떤 주제를 발견한다. 그것은 바로 '리쭈م(resume),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제2의 인생을 열기로 결심한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용기를 주는 사랑과 우정의 이야기는 보고 또 봐도 질리지 않는 인류의 스토리텔링이다. 꿈과 희망이 다 무너져버린 것 같은 곳에서도 인간은 다시 사랑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192쪽)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를 돌보고 환대할 수 있다.

4부 '사랑 이야기는 끝나지 않는다'에서는 인문, 심리, 여행, 문학, 평론 등의 장르를 종횡무진 넘나드는 글쟁이답게 영화와 드라마, 고전 문학 작품과 최신간 베스트셀러를 오가며 아무리 힘겨운 순간에도 우리에게 미소를 잃지 않게 하는 온기를 지닌 작품과 사람들을 벗 삼아 어려운 날을 지나가는 법을 일러준다. 준열한 르포작품으로 알려진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가 사실은 커다란 '듣는 귀'로 독자들의 마음을 여는 인류애로 가득한 작가임을 소개하고, 바로 그 '듣는 귀'가 환대의 시작이 될 수 있음을 말해준다. 한 무명작가가 머나먼 타국의 책방 주인과 거래하며 나누기 시작한 편지가 국경을 초월하는 우정으로 이어진 기록 『채링크로스 84번지』를 언급하면서 “이제는 만나지 못하는 친구를, 혹은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친구까지도 영원히 사랑하는 법”에 대해 생각한다.

그리고 그저 이미 쓰인 사랑과 환대의 이야기들을 읽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서사를 기록함으로써 '글쓰는 사람'으로, 자신의 삶과 상처를 돌보고 살피는 사람으로 살 것을 제안한다. 정여울

의 문장은 그렇게 읽는 사람을 쓰는 사람으로 만든다.

“친절하라. 당신이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힘겨운 전투를 치르고 있으니.”

이 책에서는 정여울 작가와 오랫동안 책작업뿐만 아니라 삶을 함께한 동반자 사진작가 이승원의 사진들도 눈여겨보아야 한다. 책 앞부분에서는 온전히 흑백사진이 흘러가다가 맨 마지막에 이르러 돌연 창문이 열려 햇살이 쏟아져들어오듯 찬란한 빛깔의 컬러사진들이 빛을 뿜는다. 마치 흑백사진처럼 단순하고 무미건조한 듯한 날들에도 미소와 발견, 더없이 아름다운 사람들의 몸짓과 표정이 있고, 컬러사진 같은 행복은 인생이나 책 전체로 따져보면 몇 페이지 안 될지 모르나, 잊지 못할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는 것을 보여주듯이. 언제 어디서 왜 찍었느냐가 중요한 사진이 아니라, 언제여도 좋고 어디여도 좋은 한순간이 만들어낸 사람들의 재미있고 감동적이고 어여쁜 얼굴과 모습들을 포착한 이 사진들 또한 큰 주제는 ‘다정과 환대’일 것이다.

어려운 시절을 지나는 동안 우리는 여기저기 닳고 긁히며 마음의 여유를 잃어간다. 그러나 지독한 슬픔과 분노가 우리를 덮칠 때에도 정여울 작가는 증오와 복수로 그에 응답할 것이 아니라, 그 슬픔과 분노를 나에게 안긴 이의 마음과 고뇌를 응시하는 노력과 용기를 주문한다. 왜냐하면 나를 박대하고 비난하는 그 사람도 나만큼이나 힘겨운 전투를 치르고 있을 것이기에. 증오와 편견, 혐오와 갈라치기의 시대, 결국 우리를 구원하고 보듬는 것은 단 한 사람의 다정과 이해, 환대이다.

슬픔과 분노가 가슴 저 밑바닥부터 마그마처럼 끓어오를 때, 떠올리는 문장이 있다.

“친절하라. 당신이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힘겨운 전투를 치르고 있으니.(Be kind. For everyone you meet is fighting a hard battle.)”

플라톤의 문장으로 알려져 있으나 출처가 확실치는 않다. 특히 너무 화가 나서 타인에게 미소 지을 마음의 여유 자체가 깡그리 사라져버릴 때, 이 문장을 가만히 되뇌며 스스로를 토닥인다. 나에게 상처 준 바로 그 사람도 오늘, 아니 평생 실새없이, 자기 나름의 힘겨운 전투를 치러왔을 거라고. 나를 비난하고 박대하며 증오하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나는 그 문장을 내 식으로 바꾸어 스스로를 토닥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절하자. 나를 슬프게 하는 사람들은 내게 드러낸 적개심보다 천배는 더 쓰라린 남모를 고통을 견뎌냈지. 이 문장과 쌍둥이처럼 닮은 문장을 파리의 서점 셰익스피어 앤드 컴퍼니에서 만났다.

“낯선 사람을 박대하지 말라. 어쩌면 그는 변장한 천사일지도 모르니.(Be not inhospitable to strangers, lest they be angels in disguise.)” 부디 온 세상이 증오와 편견으로 가득차 있을지라도, 우리가 타인을 아무 조건 없이 반가이 맞아줄 수 있는 따스한 미소만은 잃지 않기를. (41~42쪽, 「내게는 결코 친절하지 않은 당신에게」 중에서)

With KAU 멘토&멘티 참여코너

3중멘토링 멘토&멘티 인터뷰
“따라와십팔”팀
김다영멘토, 김세현멘티, 김우빈멘티



새내기성공센터에서 시행하는 3중멘토링 프로그램은 신입생과 재학생선배, 외부전문가멘토, 지도교수멘토와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신입생의 성공적인 대학생활 적응과 진로설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2022학년도 2학기 3중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소프트웨어학과 “따라와 십팔”팀의 멘토링 활동에 대해 들어 보았다.

Q1. 먼저, 멘토팀명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김다영 멘토 : 어떻게 보면 화석이라 불릴 수 있는 18학번 멘토를 잘 따라와 주었으면 하는 의미를 담아 조금 재치있게 ‘따라와십팔’이라는 멘토링 팀명을 짓게 되었습니다.

Q2. 2020학년도부터 3년 동안 3중 멘토링에 참여하셨네요?

김다영 멘토 : 네, 새내기성공센터가 설립될 때 그 처음을 함께한 멘토가 바로 접니다. 20학번 새내기를 시작으로 22학번 새내기까지, 3년 동안 총 28명의 멘티와 3중 멘토링을 진행해왔네요.

Q3. 2020학년도부터 3년 동안 3중 멘토링에 참여하셨네요?

김다영 멘토 : 아무래도 이제 막 대학교에 입학하는 새내기들은 대학 생활이 매우 낯설기도 할 거고 낯을 많이 가리는 경우에는 친구를 사귀는 것에 있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참여를 부추기는 것보다는, 우선은 멘티에게 먼저 다가가 한명 한명에 대해 알아가면서 친해진 후에 활동을 진행하는 게 멘티들과의 돈독한 관계를 만들 뿐 아니라 활발한 멘토링 진행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Q4. 그동안 멘토에게 배운 점이나 닳고 싶은 점이 있나요?

김세현 멘티 : 저희 멘토님은 육각형 인간 같습니다. 학점도 되게 좋은 걸로 알고 있고, 동아리나 멘토링 활동도 활발하게 이어나가고, 뭐든 물어보면 잘 대답해주는 친절함도 가지고 있습니다. 멘토님의 이러한 면모들을 보고 배우며 여러 방면으로 대학 생활에 동기부여를 얻었습니다.

김우빈 멘티 : 배운 것이나 닳고 싶은 점이 라고 하면 역시 학교생활의 전반적인 것도 그렇지만 성실함 같아요. 멘토님과 같은 동아리에서 활동도 해보고 멘토링을 통해서도 여러 프로그램을 참여하였는데, 그동안 느낀 점은 역시 성실함이 대단하다는 점이에요. 집이 멀어서 활동에 참여하러 학교에 오는 것이 힘들 텐데도 티를 내거나 시간약속을 잘 지키는 점이 역시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Q5. 멘토와 멘티에게 3중 멘토링은 어떤 의미 인가요?

김다영 멘토 : 3중 멘토링은 저의 대학 생활 중 잊지 못할, 굉장히 의미 있는 활동인 것 같습니다. 제가 멘티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재학생 멘토로 활동을 한 것이지만, 멘티들과 3중 멘토링을 진행하며 지도 교수님, 전문가 멘토들을 통해 저 또한 진로에 대해 더 알아갈 수 있었고 멘티들에게도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사람 사귀는 것을 좋아하는 저에게 있어서 3중 멘토링은 정말 좋은 활동이었습니다.

김세현 멘티 : 3중 멘토링은 저에게 큰 의미입니다.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저를 발전시켜주었습니다. 선배와의 대화, 지도교수님간담회, 외부전문가와의 대화에서 많은 것을 얻고 흥미진진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서로간을 알아살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김우빈 멘티 : 학교생활의 토대가 되어 준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과제 등으로 어려울 때에 학업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진로에 대해 궁금한 점도 쉽게 물어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 대학교에 와 막막한 새내기 시절, 편안한 대학 생활의 시작을 만들어준 것에 3중 멘토링이 큰 비중을 차지한 것 같습니다.

Q6. 3중 멘토링의 장점은 무엇인 것 같나요?

김다영 멘토 : 멘토의 입장에서는, 새내기가 아닌 다른 학생들은 하지 못하는 경험(새내기와의 만남, 간담회, 각종 행사 등)을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는 3년간 재학생 멘토로 활동했다 보니,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저에게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또한, 멘토로 활동하면서 ‘아, 내가 더 좋은 멘토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3중 멘토링이 학교생활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김세현 멘티 : 3중 멘토링의 장점은 여러 활동을 통해 대학 생활을 보다 다채롭게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저같이 낮을 가리는 사람들이 친구를 쉽게 사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준다는 것 또한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우빈 멘티 : 앞서 한 질문에서 했던 답변처럼 막막할 수 있는 새내기들에게 길잡이가 되어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학기 중에도 멘토링을 통해서

학업적이나 사교적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좋습니다.

Q7. 3중 멘토링을 진행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은 순간은 언제인가요?

김다영 멘토 : 저는 멘토링 활동의 시작과 끝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짧으면 한 학기 길면 1년을 멘티들과 함께 활동해야 하는데 서로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기회이자 좋은 기억으로 남을 그런 순간이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첫 만남에서 서로 수줍게 인사 나누는 것은 설레었고, 활동을 마치고 활동 보고서를 작성할 때가 되면 ‘아, 멘티들은 이렇게 느꼈구나, 이렇게 생각했구나.’ 등을 느끼며 활동을 되돌아 볼 수 있었습니다.



김세현 멘티 :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지도교수간담회였습니다. 교수님들은 다가가기 어렵다고 생각했었는데 같이 햄버거 먹으면서 진행해 친근했고 맘 편히 교수님께 궁금한 사항들을 여쭙볼 수 있었습니다.

김우빈 멘티 : 1학기가 개강하기 전에 학교에서 처음 모였을 때 같습니다. 처음으로 와보는 학교였고, 처음 만나는 동기들과 멘토님이었지만 거기서부터 제 대학 생활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라고 하면 이 순간을 뽑겠습니다.

Q8. 나의 멘토, 멘티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김다영 멘토 : 팀명처럼 저를 정말 잘 따라와 주어서 멘티들에게는 딱히 바라는 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제가 학교를 벗어나도 좋은 인연이어나갔으면 합니다.



김세현 멘티 : 넘치도록 받아서 바라는 점이 딱히 없는데 굳이 꼽자면 앞으로도 인연을 계속 이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우빈 멘티 : 너무 좋은 멘토님이었기 때문에 솔직히 아쉬운 점을 뽑기가 어려운데요, 굳이 하나를 말하자면, 많은 인원이라서 그런지 시간 맞추기가 힘들어 멘티들이 모두 모임 기회가 적었다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Q9. 3중 멘토링을 하면서 변화된 모습이 있나요?

김다영 멘토 : 멘토라는 책임 때문인지 멘티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해왔던 것 같습니다. 활동 중 하나로서 연합 멘토링을 진행하다 보니 타과에 대해서도 알게 되어 유익했습니다.

김세현 멘티 : 입학하기 전엔 낯도 많이 가지고 게을렀는데 멘토님과 이것저것 해보면서 새로운 것의 재미를 알게 되어 부지런히 여러 가지 도전을 해보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김우빈 멘티 : 평소 귀찮음이 많고 때때로 과제나 학업에 소홀히 하기도 하였는데, 멘토님의 성실함을 보고 이런 마음들이 조금씩 바뀌어나가 더욱 성실하게 학업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Q10. 2023학년도 신입생들에게 3중 멘토링을 소개한다면?

김다영 멘토 : 멘토들은 이미 길을 잘 닦아 두었고 쉬운 길을 찾아두었습니다. 멘토들을 잘 따라서 즐거운 대학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모르는 게 있다면 물어보고, 정말 마음 편히 활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세현 멘토 : 3중 멘토링은 기회입니다. 친구 사귄 수 있는 기회,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 입니다. 신입생분들이 이 기회를 잘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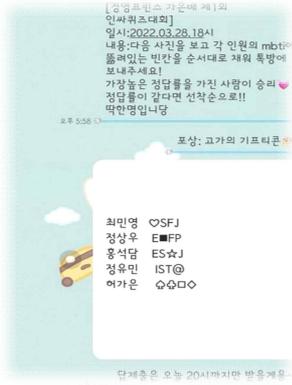
김우빈 멘토 : 궁금한 점을 선배의 생생한 경험을 통해 알 수 있고, 고민이 있다면 쉽게 다가가 상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줄 수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말고 멘토링을 좋은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조소윤 멘티 : 훌륭하게 멘토로서 지내주셨기에 바라는 점은 없지만 굳이 꼽자면 학교에서 자주 마주치고 싶다는 것입니다. 과 선배임에도 유독 우연히 만나기 어려운 사람이라 아쉬웠습니다.

선배님한테 도움도 정말 많이 받을 수 있고, 알지못했던 학교 소식과 혜택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멘토님 말 잘듣고 열심히 하세요!

조소윤 멘티 : 우리학교의 3중 멘토링 제도를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재학생 멘토, 지도 교수님, 외부 전문가 멘토뿐 아니라 멘토링 활동을 통해 멘티들과의 관계도 잘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Q8. 2023학년도 신입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허가은 멘토 : 학교나 진로, 과목선택 등등 무엇이든지 궁금한 점이 있다면 에브리타임이 아니라 멘토에게 질문하세요! 멘토는 언제든지 여러분의 질문에 대답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여러분의 질문을 마다할 멘토는 절대 없습니다. 어떤 질문이라도 멘토는 여러분에게 정보도 찾아보지 않는 게으른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담없이 질문하세요!!



최정화 멘티 : 멘토링 열심히 참여하면 멘토

With KAU 2월 웹진 퀴즈 EVENT

Q. 우리대학교 다전공 신청 요건 중 옳바른 것은?

- ① 1학년 과정 이상을 수료한 재학생
- ② 2학년 과정 이상을 수료한 재학생
- ③ 3학년 과정 이상을 수료한 재학생
- ④ 4학년 과정 이상을 수료한 재학생

참여방법

메일송부 (kaussc@kau.ac.kr)
인적사항은 학번+성명+핸드폰번호

응모기간

2023.02.22 ~ 2023.03.19

당첨자선물

정답자 추첨하여 소정의 기프티콘 발송

당첨자발표

With KAU 21호

With KAU 1월 웹진 퀴즈 EVENT 당첨자

A. ① 그룹스터디룸

그룹스터디룸은 중앙도서관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0***51 송○근

2021***51 이○재

2019***11 김○우



※ 제출한 핸드폰 번호로 기프티콘 발송

With KAU

멘토&멘티 참여코너

With KAU 웹진에 멘토&멘티가 참여하는 코너를 신설하였습니다.
3중멘토링인터뷰, 도전 백주부, KAU 백일장 코너에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수록해주세요

코너명	코너소개	참여선물
멘토&멘티 인터뷰	월별 3중멘토링 활동에 대한 인터뷰를 합니다. 신청하신 멘토 또는 멘티에게 센터의 전문멘토가 취재하여 활동내용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도서상품권 (5만원)
도전 백주부	시기에 맞는 요리 및 레시피를 소개해 주세요	
KAU백일장	월별 멘토&멘티가 직접 쓴 독서감상문, 여행기, 수필 등 자유로운 내용을 소개합니다. "내용, 주제 자유"	

응모방법 : kaussc@kau.ac.kr

문의전화 : 새내기성공센터 02-300-0250~1



2023년 3월

sun	mon	tue	wed	thu	fri	sat
Plan	Plan	Plan	1 Plan	2 Plan	3 Plan	4 Plan
				2023 새내기 입학수기 공모전		
5 Plan	6 Plan	7 Plan	8 Plan	9 Plan	10 Plan	11 Plan
	2023 흥미진진 프로그램	2023 흥미진진 프로그램	← ----- 새내기성공센터 흥미진진 진로탐색 프로그램 상시진행 ----- →			2023-1 재학생멘토 장학금지급
12 Plan	13 Plan	14 Plan	15 Plan	16 Plan	17 Plan	18 Plan
		← ----- 새내기성공센터 흥미진진 진로탐색 프로그램 상시진행 ----- →				
		전공노들돌행사		전공노들돌행사		
19 Plan	20 Plan	21 Plan	22 Plan	23 Plan	24 Plan	25 Plan
		← ----- 새내기성공센터 흥미진진 진로탐색 프로그램 상시진행 ----- →				
		전공노들돌행사		전공노들돌행사		
26 Plan	27 Plan	28 Plan	29 Plan	30 Plan	31 Plan	
				생활법률특강 (생활재해와법)		



[새내기성공센터 유튜브 채널]

Follow

us:

<http://fsc.kau.ac.kr>

**now
ONLINE**



**KOREA AEROSPACE UNIVERSITY
FIRST YEAR SUCCESS CENTER**

